KORAIL 사회봉사단

300-720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소제동)
한국철도공사(http://www.korail.com)
코레일 사회봉사단 Tel : 042)615-3201, Fax : 02)361-8278

KORAIL 2011 사회공헌백서 | KORAIL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PORT 2011

발 간 등 록 번 호
경영혁신-08-12306-01

KORAIL 2011 사회공헌백서

KORAIL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PORT 2011

레일로 이어지는 행복한 세상

Contents

02 발간사
03 축사 및 제언

나눔철도, 소외된 이웃에게 달려갑니다

05 사회공헌활동 기본 이념
06 사회공헌활동 비전 및 엠블럼
07 사회공헌활동 추진 체계 및 조직
08 2011년 사회공헌활동 현황
09 코레일 사회봉사단이 걸어온 길

10 2011 KORAIL 사회공헌활동 사진전

희망역에 정차하겠습니다

17 해피트레인
23 코레일빌리지
28 농촌사랑
30 방문봉사 · 일반복지
33 문화교류
36 환경봉사
38 기타사업

행복역에 도착합니다

41 봉사활동 수기
46 2011 주요 수상내역

KORAIL은 국민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차에 행복을 싣고 희망이 넘치는 마을로 떠납니다. 이제 철도 사업의 특성을 살린 사회공헌 프로그램 '해피트레인'을 타고 철도 임직원의 재능으로 이웃을 돕는 프로그램 '코레일빌리지'를 향해 달리며 '1사1촌활동'과 '아름다운 산 · 강 가꾸기'를 펼치는 기업시민 KORAIL을 만납니다.

해피트레인을 타고 코레일빌리지로

발간사

실천하는 나눔으로 더 큰 행복을 빚고 있습니다

KORIAL은 고객, 환경, 미래와 소통하는 '국민기업 KORAIL'을 구현하기 위해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코레일사회봉사단을 발족하여 지난 8년간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사회봉사단은 '레일로 이어지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라는 슬로건 아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도라는 업무의 특성을 살려 특화시킨 '해피트레인'과 '코레일빌리지'를 비롯하여 '1사1촌 활동', '아름다운 산 · 강 가꾸기'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사랑과 희망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특히, 2011년에는 3만여 명의 임직원이 자원봉사에 참여하여 39만여 명의 수혜자에게 18만여 시간의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급변함에 따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형태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패러다임이 '자선'에서 '참여'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회적인 이벤트 차원의 지원이나 형식적인 봉사활동의 차원을 넘어서, 근본적인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진정한 사회공헌활동이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원봉사는 KORAIL 임직원이면 누구나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기업문화가 되었음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KORAIL 사회봉사단은 일시적인 지원이나 단발적인 참여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나눔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ORAIL 전 임직원의 땀과 사랑으로 얻은 행복한 결실들을 '사회공헌백서'에 담아냈습니다. '사회공헌백서'의 무게를 더해 갈수록 어려운 이웃의 발걸음은 더욱 가벼워질 것이고, 우리 공사의 '사랑나무'로 삼아 행복이 가득한 푸른 세상을 가꾸는 데 모두가 앞장서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사는 전국적인 철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하고 알찬 나눔활동을 펼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국민기업 KORAIL'로 거듭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레일로 이어지는 행복한 세상만들기'에 따뜻한 손길로 수고하시는 KORAIL 사회봉사단 여러분과 비영리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레일사회봉사단 단장 **팽 정 광**

축사 및 제언

KORAIL 사회공헌백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민철도기업으로써 국민 모두의 교통 편익을 크게 향상시키며 미래사회를 좀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코레일의 2011년 사회공헌백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민 모두를 빠르게 만나게 해주는 철도처럼 '나눔과 봉사'를 통해 행복으로 우리 모두를 이어주는 코레일의 나눔경영이 고객들에게 새로운 감동과 기쁨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코레일은 '레일로 이어지는 행복바자회', '사랑나눔 캠페인' 등 전 봉사단이 함께하는 「공동 사회공헌활동」, 문화 · 여행 소외계층을 위한 「해피트레인」, 극빈자,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인 「코레일빌리지 사업」, 도시 · 농촌간 상생을 위한 「1사 1촌」, 「어메니티활동」, 거동이 불편한 이웃을 위한 「방문봉사 활동」 등의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어린이재단과는 2010년 7월 9일부터 손을 잡고 실종아동찾기 '슬픈숨바꼭질' 캠페인의 일환으로 KTX 매거진과 KTX열차 내에서 304명의 실종아동사진을 영상으로 내보내 104명의 실종아동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다양하고 체계적인 사회공헌사업에 더하여 철도네트워크를 활용한 새로운 공헌활동 발굴에도 노력하는 등 코레일 전 임직원이 하나의 생각으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아름다운 모습은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삶의 질과 환경을 위해 공헌하는 기업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경영」, 「환경을 위한 그린경영」으로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달려가는 '국민기업 코레일'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린이재단 회장 **이 제 훈**

나눔철도, 소외된 이웃에게 달려갑니다

지난 113년 동안 국민의 발이 되어
열심히 달려온 KORAIL.
이제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나눔철도가 되어 소외된 이웃을 향해 나아갑니다.
진심이 담긴 따뜻한 봉사와 정성으로 빚어내는
꾸준한 헌신을 실은 나눔철도 KORAIL은
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나라,
그리고 사랑이 많은 국민과 언제나 동행합니다.

Philosophy

사회공헌활동 기본 이념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급변함에 따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형태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패러다임이 '자선'에서 '참여'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회적인 이벤트 차원의 지원이나 형식적인 봉사활동의 차원을 넘어서, 근본적인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공헌활동이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코레일 사회봉사단은 '레일로 이어지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라는 슬로건 아래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사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전국적인 철도망을 활용한 현장밀착형 사회공헌 사업과 사회적기업의 자립, 지원 사업을 벌여 나가고 있으며, 장기적인 비전 아래 다음과 같은 사회공헌활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01 코레일은 고객을 존중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적 역할에 충실한 기업을 목표로 합니다.

코레일은 공기업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와 고객, 조직 구성원의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려 합니다.

02 코레일 사회공헌 활동의 본질은 재능을 나누는 현장 밀착형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코레일은 사회공헌활동을 단순한 자선적, 시혜적 차원의 기부활동을 지양하고, 현장을 직접 발로 뛰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03 코레일의 사회공헌 활동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지향합니다.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가시적인 행사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비전 아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회공헌활동 비전 및 엠블럼

사회공헌활동 비전

미션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GREEN NETWORK			
비전	세계 1등 국민철도 달성을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			
핵심가치	재능나눔	지속가능	지역공헌	
4대 전략방향	나눔실천 인프라 구축	전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문단체와 파트너십	홍보와 성과공유
미션	• 재원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성 제고 • 조직체계 정비 및 지원활동 강화	• 전사 공동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노경 공동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전문분야별 파트너십 강화 • 언론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 전략적 홍보 강화 • 사회공헌 성과 공유 및 평가체계 구축
슬로건	레일로 이어지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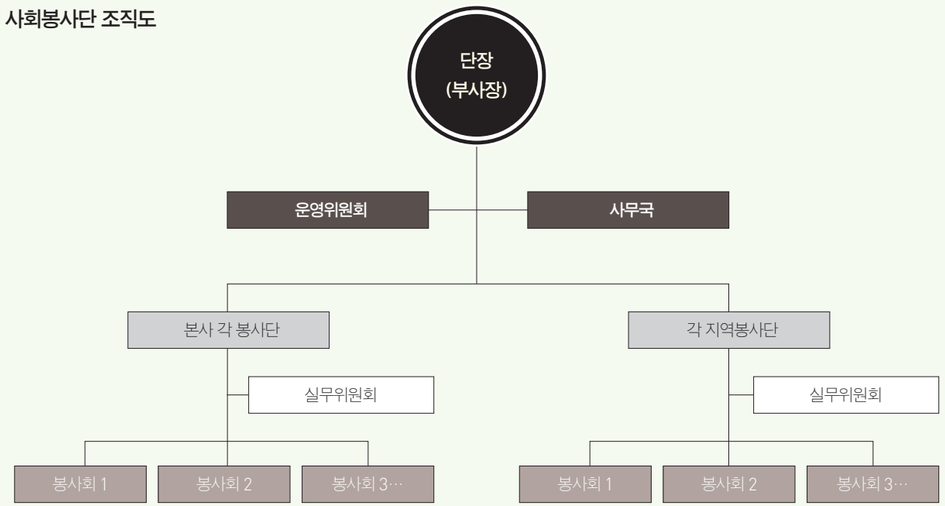
엠블럼

원은 '우리 모두 다함께'라는 조화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선의 흐름은 철도 레일 위를 달리고 있는 기차를 뜻하고 있습니다. 빨강색은 활동적이고 의욕적임을 뜻하며, 노랑색은 상쾌하고 찬란함을, 녹색은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색으로 긴장을 완화시켜 주고, 보라색은 고귀하고 장중한 느낌을 주는 색이며, 검정색은 침착하고 안정을 주는 색입니다. 이러한 오색의 사용은 옛날부터 한국인들이 즐겨하는 색깔의 사용방법입니다.

사회공헌활동 추진 체계 및 조직

추진 체계

코레일 사회봉사단 조직도



Performance Indicators

2011년 사회공헌활동 현황

사회공헌활동 현황

코레일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1구좌(1,000원) 이상 가입하여 구좌수에 따라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사회공헌활동 기금인 사랑의 성금과 함께 회사에서 후원금을 지원하는 매칭그랜트를 주요 재원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공동으로 이웃돕기 모금함을 설치하여 철도회원 및 코레일 임직원이 함께하는 코레일 러브포인트 모금 등 고객과 함께 나눔실천의 기회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참여인원	연 80,373명	연 111,668명	연 42,121명
활동시간	총 285,176시간	총 382,472시간	총 185,863시간
지원금품	10억 7,700만 원	10억 9,500만 원	11억 270만 원
사랑의 성금	8억 5,370만 원	6억 8,000만 원	6억 6,290만 원
매칭그랜트	2억 5,365만 원	4억 1,100만 원	5억 1,222만 원
러브포인트 참여 현황	4,360만 포인트	1,895만 포인트	1,988만 포인트

코레일 사회봉사 프로그램

구분	횟수	수혜인원	봉사시간	참여인원
해피트레인	268회	12,292명	17,480시간	1,905명
코레일빌리지	275회	6,354명	19,410시간	2,803명
복지단체 · 자매결연	2,594회	231,327명	78,578시간	19,115명
기부금 전달	192회	4,177명	1,691시간	1,009명
가정방문봉사	368회	6,696명	12,047시간	2,873명
교육 · 학습	123회	6,156명	2,297시간	699명
재해복구	38회	8,318명	2,863시간	380명
헌혈	561회	4,831명	4,362시간	1,218명
문화교류	82회	16,305명	4,190시간	933명
농촌돕기	187회	4,924명	16,859시간	2,628명
환경봉사	572회	85,868명	24,114시간	8,107명
기타	54회	2,163명	1,975시간	451명
합계	**5,314회**	**389,411명**	**185,863시간**	**42,121명**

History

코레일 사회봉사단이 걸어온 길

연혁

2005

04 사회공헌 전담조직 신설
08 사내 자원봉사단체 조사 및 순회 토론회
(135개 봉사단체 발굴)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충남 금산군 군북면 보광리)
10 '제1회 코레일 사회봉사주간' 운영
'테마열차여행 장애아동 KTX 여행체험'
전사적 '사랑의 나눔 헌혈행사' 시행
11 윤리경영팀에서 사회공헌 담당 편재
대한적십자사와 사회공헌 파트너십 협약
서울역 노숙인 아웃리치팀 발족
12 사내 사회봉사리더 워크숍(코레일 사회봉사단 발족을 위한 토론 및 설문조사)
'연말 어려운 이웃 돕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기부 및 위문

2006

01 사회공헌활성화추진단 TFT 발족
'코레일 러브펀드(사회공헌활동 기금) 1구좌 갖기 운동' 전개
03 코레일 사회봉사단 운영지침 수립 시행
04 한국 해비타트와 사회공헌 협약 추진
05 한국복지재단과 협조, '가정의 달 미아찾기 캠페인' 전개
07 전사적 재해복구 봉사활동 참여
09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함께하는 '코레일 웨딩 수호천사' 추진
10 매칭그랜트(회사의 사회공헌 기여금) 확보
제2회 코레일 사회봉사주간(전국자원봉사대축제 연계) 운영
12 노숙인 아웃리치팀 확대 시행(서울, 영등포, 수원, 대전, 부산)
사내 우수 자원봉사단체 포상(7팀)

2007

01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24팀 선정, 3,400만 원 보조금 지급)
03 고객참여 마일리지 포인트 기부 캠페인 실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사회공헌 파트너십 협약
(포인트 모집을 통한 사회적 약자 열차여행 기금 조성)
05 9개 계열사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워크숍 실시
06~10 대한적십자사와 공동모금함 설치
09 시니어 행복나눔이(철도 퇴직인 봉사단체) 발대식 및 전문성 교육
코레일 가족봉사팀 창립, 대전시 교육청과 사회공헌 협약
10 제3회 코레일 사회봉사주간 운영, 본사 프로그램으로 마일리지 포인트 활용
11 제1회 사회공헌문화대축제(전경련, 보건복지부, 사회공헌정보센터 주최) 참가
신입사원 대상 기업 사회공헌 교육 및 자원봉사 체험활동 시행
12 우수봉사단체 포상(대상 등 12팀, 530만 원 포상)

2008

03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시행
(25팀 선정, 6,700만 원 보조금 지원)
04 '제4회 KORAIL 사회봉사주간' 운영
06 나눔실천 체계화를 위한 코레일 사회봉사단 운영지침 개정
'2007 코레일 사회공헌백서' 발간
10 언론사(SBS)와 함께 공동 프로그램 '기아체험 24시간' 운영
12 KTX 정차역 사회공헌활동 사진 순회 전시회 실시
자원봉사 리더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실시
우수봉사단체 및 봉사활동 유공자 포상
(7개 봉사단체, 14명 표창)

2009

03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선발 · 지원
(25개 단체 선정, 66,720천 원 보조금 지원)
04 '제5회 코레일 사회봉사주간' 운영
06 '2008 코레일 사회공헌백서' 발간
10 언론사(SBS) 공동 프로그램 '기아체험 24시간' 운영
12 연말연시 '코레일 사랑' 나눔활동
전사적 헌혈행사 시행
우수봉사단체 및 봉사활동 유공자 표창(11개 단체)

2010

04 사회공헌 우수프로그램 선발 · 지원
(27개 우수프로그램 선정, 48,905천 원 지원)
07 '2009 코레일 사회공헌백서' 발간
전국 주요역에서 '레일로 이어지는 행복+바자회' 개최
09 사회공헌포털 구축 및 재원운용 결산 · 보고 간소화
10 취약 계층의 철도여행을 위한 'GLORY 해피트레인' 운영
12 전 봉사단(42개)이 함께 '코레일 사랑나눔 캠페인' 전개

2011

03 언론사(KBS)와 '생명을 나눕시다' 공동프로그램 운영
05 사회공헌 우수프로그램 선발 · 지원
(23개 우수프로그램 선정, 40,190천원 지원)
철도연변 소외계층 초청 'GLORY 해피트레인' 운영
MBC공동사업 '쪽방촌 사람들 여행을 떠나다'
해피트레인 시행
08 집중호우 수해지역 수해복구 지원활동
09 소외계층에게 희망을 선물하다–코레일빌리지&프로보노
10 2011 나눔실천 유공기관(보건복지부) 표창
글로벌 스탠더드 경영대상 사회책임경영 부문 '大賞' 수상
(한국능률협회 인증원)
11 연말연시 '코레일 사랑나눔 캠페인' 전개
(247개 단체, 171개 봉사회 참여, 2억원 지원)
12 역사 내 모금함 개선 및 헌혈뱅크 운영
2011 우수봉사단체 선발 및 포상(11개단체)

2011 KORAIL 사회공헌활동 사진전

코레일은 사회공헌활동의 우수사례를 발굴, 홍보하여
대내외로 사회공헌의 진정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지난 해에 이어
2011년에도 '사회공헌활동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든 작품들에 대한 면밀한 심사 끝에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5팀, 장려상 10팀을 선정하였습니다.
코레일은 앞으로 이번 공모전의 생생한 현장 사진을 모아
주요 역사에서 사진전을 개최하여 코레일의 '따뜻한 세상만들기 스토리'를
널리 전하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대도시나 한적한 농촌이나 가리지 않고 쉼 없이
힘차게 달리는 기차처럼 KORAIL의 3만여 임직원들은 지난 2011년에
5,300여 회에 걸쳐 18만5천 시간을 들여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세상이 더 따뜻하고 행복해진다면, 우리 이웃의 삶이 아름다워진다면,
KORAIL은 마음과 정성을 담아 쉬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내사랑을 받아주오

대상 _ 손형식 / 서울본부

Photo Contest 2011

코레일은 그 무엇보다도 고객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코레일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고객과 사회, 어려운 이웃의 삶을 보석처럼 아름답게 가꾸고, 조직 구성원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휴먼 경영'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수재민에게 힘을 드려요

최우수상 _ 한옥임 / 자원봉사자

내생애 첫삼겹살

최우수상 _ 한정동 / 서울본부

사랑의 불빛

우수상 _ 김경희 / 대전충남본부

따뜻한 마음 담아 연탄 전달

우수상 _ 이명로 / 수도권동부본부

코레일을 믿고 올라가세요~~~

우수상 _ 양미옥 / 수도권서부본부

와~~~ 증기기관차 처음봐요

우수상 _ 이영옥 / 수혜자

행복한 미소

우수상 _ 김달성 / 전북본부

편안한 삶의 보금자리를

장려상 _ 유규환 / 광주본부

우리는 코레일 맥가이버~~~

장려상 _ 정일권 / 전남본부

하루 종일 휠체어만 앉아있는 혜진이의 손을 잡아 주는 일, 수해로 무너져 내린 집을 고치는 일, 겨울이 오기 전에 산동네에 연탄을 나르는 일, 장애우에게 등산이라는 새로운 체험을 하게 하는 일, 어려운 처지의 이웃에게 찾아가 페인트를 칠하고 집을 수선하는 일… 모두가 우리 일, 내 일, 코레~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날 때면 언제나 이웃 곁으로 달려갑니다.

칼칼라~~~ 열차타고 떠나요^^

장려상 _ 이상열 / 대전충남본부

시원하시죠~

장려상 _ 권오은 / 전북본부

연탄 상할라!! 조심조심~

장려상 _ 홍기정 / 충북본부

어머니! 옆도 보시면... ^^

장려상 _ 최태호 / 서울본부

커져가는 사랑으로

장려상 _ 정영숙 / 수혜자

장애우와 함께한 공부방

장려상 _ 이명건 / 경북본부

사랑의 짜장면

장려상 _ 최병수 / 대전충남본부

봉사자의 행복한 미소

장려상 _ 유한식 / 전북본부

희망역에 정차 하겠습니다

쿠키를 만들어 먹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섬에 찾아가고, 열차를 타고 산업현장에 견학을 가고,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를 타는 일…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상이지만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우,
결손가정 어린이, 그리고 저소득층에게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값진 경험입니다. 희망을 줄 수 있다면 달려가겠습니다.
용기가 된다면 함께 머물러 있겠습니다.

Happy Train

사랑 가득한 기차여행, 해피트레인

해피트레인(Happy Train)은 경제적, 육체적 이유 등으로 자유로운 여행에서 소외되어 생활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코레일이 가지고 있는 기차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여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꿈과 희망을 주는 코레일의 대표적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한국철도공사

01

기차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 01

코레일은 2011년 10월 28일, 한국능률협회인증원 주관 글로벌 스탠더드 경영대상에서 사회책임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그 내면에는 착한기업으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전략적이며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큰 역할을 하였다.

기업의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을 고민하던 중 경제적, 육체적 이유로 인해 여행을 아예 꿈도 못 꾸고 사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췄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기차여행은 너무나도 훌륭한 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의 자원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탄생하게 된 해피트레인!!!

해피트레인은 현재의 어려움과 눈물을 기차여행으로 날려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는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 코레일의 특화된 교통인프라를 활용한 기차여행을 통해 業의 본질에 맞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사랑 가득한 행복한 기차여행, 해피트레인의 세계로 함께 떠나 보자.

02

봉사활동은 일상생활 – 02

경춘선에 위치한 가평관리역 소속 「너나들이 봉사회」에서는 5년 전부터 연탄배달, 김장나눔, 방문 목욕봉사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해 왔다. 그러던 중 회원들 간에 아동복지센터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해보자는 얘기가 나왔었다. 가평군내에 있는 아동복지센터를 수소문해 본 결과 '주소망아동복지센터'와 '가평지역동센터' 2군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작년부터 그 가운데 가평읍내에 있는 '주소망아동복지센터'를 선정하여 회원들이 교육 프로보노 활동인 공부방 봉사활동, 고민상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었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 주변의 입소문을 타고 연말에 경기도지사로부터 상을 받기도 해 기대이상의 큰 보람을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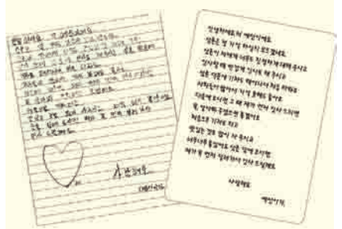
Happy Train

해피트레인

03

04

05



해피트레인 체험 어린이의 감사편지

희망충전 해피트레인을 떠나다 – 0304

하지만 이와 같은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으로 성과도 있었음에도 가슴 한켠이 허전함이 있어 원인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그 결과 명색이 驛인데 역과 기차라는 인프라를 활용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빈약한 것에 착안을 하고 주변 다른 봉사회의 도움을 받아 해피트레인을 추진하게 되었다.

베풂과 봉사의 열매는 나누는 것이 좋은 것. 그래서 올해에는 작년에 하지 못했던 '가평지역아동센터'와 함께하기로 뜻을 같이 하였다. '가평지역아동센터'는 역과 떨어진 오지(娛地)라는 거리상의 문제로 해피트레인은 그야말로 멋진 기획상품이 되어 준비부터 설레게 하였다.

가평지역은 그동안 일반열차(주로 무궁화)만 운행하여 전철과는 무관했었다. 그러다보니 새로 복선전철로 개통된 경춘선은 물론 수도권전철에 대해서, 심지어 전철 이용방법도 모르는 주민들이 많았다.

이러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과천 국립과학관 현장체험학습' 해피트레인을 계획했다. 가평지역의 미래 꿈나무들에게 교통이용 불편으로 가보지 못한 '과천 국립과학관'의 체험과 '수도권전철'도 경험해 보는 기회를 만들어 준 것이다.

해피트레인을 통해 직접 전철승차권도 발권해 보고, 환승역을 이용하여 환승경험도 해 본 어린이들과 아동센터 선생님들은 매우 만족하였다. 해피트레인의 목적지였던 '과천 국립과학관' 관람이 서브가 되었을 정도로...

아이에게서 위로 받다 – 05

회원들과 아동센터 학생들과 국립과학관을 이 곳 저 곳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 아이가 가족과 함께 온 아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부러움이 묻어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길래 "너 부러운가 보구나" 했더니 "아니에요" 하며 달려가는 모습에서 애잔함이 느껴지기도 하였다.

하루 내내 함께 지내다보니 학생들과 제법 친해졌는데 초등학교 4학년인 한 아이가 다가와 "아저씨 오늘 고맙습니다" 그러길래 "응. 나두 고마워. 너희들 때문에 나도 기분이 좋아" 그러니 "전 아저씨 덕분에 기차 처음 타보는데요" 하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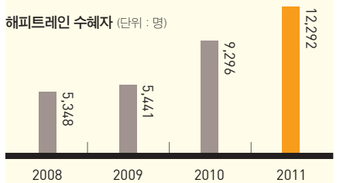
그래서 "그래? 그런데 오전에 열차 처음타본 어린이 손 들어볼래? 할 때 왜 손 안 들었니?" 물으니 "그건 기차 처음 탔다고 하면 아저씨가 우리를 무시할까 봐서요.", "아저씨는 무시하지 않아." "그런데요. 다른 사람은 처음이라고 하면 무시해요. 전 그게 싫어요. 그래서 전 한 적이 없어도 했다고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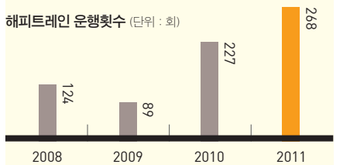
순간 무척이나 당황스러웠다. 무심코 건낸 말이 아이들은 그로 인해 상처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비록 좋은 의도로 추진하는 사회봉사활동도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봉사활동은 봉사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평역으로 돌아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OOO야, 아저씨가 오전에는 미안했어." 하니 "삼촌! 괜찮아요. 전 오늘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도 꼭 기차 태워 주세요" 하며 손을 흔들더군요. 저도

06 _ 장애인과 함께하는 해피트레인

07 _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정동진 나들이





웃으며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하였다. 오히려 위로를 받은 날이었다.

함께 해피트레인을 다녀왔던 어린 학생의 꾸밈없는 편지에 우리 봉사회원 모두는 지역사회와 철도가 어우러진 봉사활동을 정말 잘 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삼촌이라 불러주던 작지만 예쁜 아이. 앞으로는 먼저 달려와서 인사하겠다는 진심어린 그 말에 정말 눈물이 쑥 빠지도록 기분이 좋아짐을 느꼈다.

행복한 기차여행은 나눔의 실천 – 06

세상의 모든 일은 연관되어 있다. 사회적 약자에게 등을 돌리고 외면하면서 각자의 길만 찾는다면, 우리를 보는 그들의 시선이 언젠가는 독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 결국 봉사활동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책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한 더 많은 사회적 배려와 나눔활동이 필요한 시기다. 이런 측면에서 가평관리역 「너나들이 봉사회」에서 실시한 해피트레인 봉사활동은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KORAIL의 위상을 한층 더 고양시키고 회원들의 뜨거운 가슴은 나눔경영 실천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본다.

코레일에서는 2008년부터 여행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초청하여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활동을 지역자치단체, 민간기업, 전문 NGO단체, 언론사와 연계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KTX, 새마을, 무궁화, 전동차 등 열차타기 체험을 통해 곡성 기차마을, 철도체험장, 철도역 인근 유명관광지 방문 등 철도체험 학습, 자연생태 체험과 기차를 이용한 사회적응 훈련 등이 진행되었다.

특히, 해피트레인은 코레일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많은 수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봉사활동 운영 현황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희망을 미래로 나르는 해피트레인 – 07

코레일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기업으로서 교통약자인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역자치단체, 민간기업, 전문 NGO단체와 연계하여 業의 특성을 살린 현장밀착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해피트레인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사회적 약자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전략 프로그램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1년 해피트레인에 대한 수혜자와 봉사자 등의 만족도와 신규 사업 수요 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2012년 사업에 반영하여 해피트레인을 코레일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Happy Train

해피트레인

1. 전북본부 봉사단 _ 글로리봉사회

특수장애아동 초청 해피트레인 운행

2011년 1월 여행에서 소외된 특수장애아동 15명을 초청하여 롯데월드로 떠나는 아주 특별한 기차여행을 다녀왔습니다.
KTX 열차안에서는 장애아동을 위한 치료프로그램과 레크레이션을 진행하여 장애아동에게 정신적 안정감과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우석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재학생과 장애아동은 상호 봉사와 신뢰를 약속하는 1:1 결연을 맺고 기차여행의 도우미 및 안내자 역할을 하며 함께 정을 나누는 등 여행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놀이동산에 처음오는 아동들도 처음에는 놀이기구 탑승에 긴장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스릴과 재미로 추운날씨에 아랑곳 하지 않고 시간 가는줄도 모르고 하루가 갔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 전남본부 봉사단 _ 사랑나눔동아리회

온 세상에 퍼져라! 나눔과 봉사의 물결!

순천 성신원의 어린이를 초청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해피트레인 행사를 떠났습니다. 순천에서 곡성까지 열차 이용 및 섬진강 기차마을에서의 증기기관차, 레일바이크 타기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체험위주로 진행을 했었답니다. 이번 행사는 KTX 운행에 대비한 안전교육 및 철도체험 학습과 병행하여, 역장을 비롯한 직원 및 글로리회원이 자원봉사로 참가하여 1일 부모로 활동하였으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과 선물 등으로 소중한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사회의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기차에 대한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어 코레일의 마니아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 강원본부 봉사단 _ 코레일봉사회

바다열차를 타고 떠나요

도계지역 아동센터 어린이 35명을 초청하여 친환경 철도체험 및 바다열차 체험행사를 떠났습니다. 바다열차 체험행사는 코레일 강원본부와 코레일관광개발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표적인 '문화체험 사회공헌' 활동을 말합니다.
「꿈과 희망을 싣고 떠나는 해피트레인」 주제로 동해~정동진역간 바다열차 체험, 정동진역 견학 등으로 진행되어 평소 접하지 못한 친환경 녹색철도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꿈과 희망을 북돋아주고 위해 추진되어 기차여행의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의 간판 사회공헌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해피트레인은 철도회원 및 코레일 임직원이 기부한 러브포인트를 활용해 문화와 여행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철도여행의 기회와 즐거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4. 철도교통관제센터 봉사단 _ 철도교통관제센터 봉사회

우리문화의 우수성에 대해 이해해보아요

가정의 달 5월에 지역 사회복지시설인 '화원종합복지관'에서 다문화 가정 어린이와 조모님을 초대하여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기차여행을 떠났습니다. 서울시티투어를 통한 덕수궁·창덕궁 관람 등을 통해 우리의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시간과 그림그리기, 보물찾기 등을 하면서 푸짐한 선물도 전달하는 뜻있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다문화가정의 조모님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문화의 우수성에 대해 폭 넓게 이해할 수 있고 자긍심을 갖게 되어 자랑스럽다며,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5. 대전철도차량정비단 봉사단 _ 대전철도차량정비단 봉사회

임실치즈스쿨을 방문했어요

철도여행이 어려운 관내 소외계층 어린이 20명과 함께 전라북도 임실군에 위치한 임실치즈스쿨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체험관에서 피자만들기, 뻥튀기, 썰매타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해피트레인 체험활동으로 미래고객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답니다.

6. 대구본부 봉사단 _ 행복스테이션 봉사회

김해-가야 역사 문화탐방을 떠나요

지역 사회복지관 소속 어린이를 초청하여 평소 어린이가 이해하기 어려워했던 가야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학습효과를 더욱 높이고자 전문 문화 해설사를 초빙하여 평소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을 현장에서 직접 묻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한림민속박물관, 봉황동 유적지, 수로왕릉과 국립김해박물관을 차례로 견학했으며, 민속놀이 체험행사에서는 봉사회원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답니다.돌아오는 기차안에서는 '서울 경복궁에도 가고 싶다'는 밝고 힘찬 목소리에 빠른 시일 내 다시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고 전하면서 이별의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7. 서울정보통신사무소 봉사단 _ 서울정보통신사무소 봉사회

기차타고 떠나는 즐거운 경주체험여행

여행에서 소외된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23명과 함께 철도를 이용한 즐거운 경주체험 여행을 통해 레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만남을 만들었습니다. KTX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신경주역에 도착 후, '세심마을'로 이동하여 활쏘기, 떡메치기, 투호던지기, 서원둘러보기 등 자연과

Happy Train

함께 시간을 보내고, 경주박물관에 도착해 경주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물인 에밀레종, 금관, 불상 등을 관람하면서 신라의 지혜를 배워서 훌륭한 사람이 되자고 다짐하는 알찬 하루가 되었습니다.

8. 수도권동부본부 봉사단 _ 햇살나누기 봉사회

반딧불 축제장과 덕유산 곤돌라 견학

햇살나누기 봉사회 회원 10명과 한국보육원 청소년 60명은 무주군 덕유산 곤돌라 체험과 산행, 반딧불 축제장 견학, 바람개비 만들기 체험, 무주 와인터널 견학 등을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한국보육원 원장은 "아이들이 기차를 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반딧불 축제장과 덕유산 곤돌라 견학 등을 통해 아이들이 해맑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매우 뿌듯한 하루였다.

9. 광주본부 봉사단 _ 빛고을 봉사회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KTX타고 익산 문화탐방

평소 열차여행을 못하는 형편이 어려운 지역아동과 함께 KTX 체험 및 익산 문화탐방으로 김대건 신부의 첫 번째 사역지인 나바위성지, 함라 삼부자집 및 백제문화유산 국보 11호인 미륵사지석탑과 우리나라 유일의 보석박물관을 관람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돌아오는 열차안에서는 기념품을 나누어 주고 체험후기를 쓰고 시상으로 상품권까지 받을 수 있는 미래의 꿈나무들의 뜻깊은 여행이었다.
미래의 주역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새로운 문화체험으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겠다.

10. 충북본부 봉사단 _ 한마음봉사회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행복한 기차여행

제천 지역단체인 아이코리아와 함께 제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해피트레인을 운행했습니다.
제천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20가구, 한마음봉사회 10명이 함께 대전 엑스포공원으로 기차여행 추억을 만들었다. 아침 10시 40분 출발하여 대전으로 가는 동안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각자의 가족을 소개하고 미리 준비한 사진으로 사진꾸미기, 편지쓰기 등을 시행하였고 맛있는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한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기념품으로 준비한 작은 선물을 주며 작지만 훈훈한 정을 함께 나눴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기차에서 끼읍짠리씨는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만은 즐겁고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다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오늘 정말 소중한 경험을 하는 것 같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서툰 한국말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저녁 8시 30분경 제천에 도착하여 다문화가정 가족과 가시 한 번 인사를 하며 행복한 기차여행을 마쳤고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다.

Korail Village

키다리 아저씨들의 뚝딱 뚝딱 이야기 코레일빌리지

보금자리의 의미를 아십니까?
보금자리는 '지내기에 매우 포근하고 아늑한 곳'이라는 뜻의 우리말입니다. 따뜻한 가슴과 요술방망이 같은 재능으로 외롭고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의 보금자리를 선물하는 사업이 코레일빌리지(Korail Village) 사업입니다.

한국철도공사

01

02

2011 코레일빌리지! 소외계층 아동의 꿈과 희망을 짓다! – 01

2011 코레일빌리지 사업은 철도 주변 저소득 계층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발전시켜 집수리는 물론 소외계층 아동에게 컴퓨터, 책상, 의자 등 교육 기자재를 지원하고 학습 프로보노 봉사활동 등을 주요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다.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코레일빌리지는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으로부터 불우 소외계층 가정과 열악한 복지시설을 추천 받아 가정 5개소, 공부방 8개소를 선정하여 코레일 빌리지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지원규모는 약 1억 3000만원이다.
그 가운데 대전충남본부의 코레일빌리지 사업을 직접 진행한 유혜영 사우(사회공헌활동 체험 수기 대상 수상)의 후기를 들어본다

새로운 코레일빌리지와의 만남은 걱정이 앞서고… – 02

휴일 오전에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러브하우스이다. 복잡하고 지저분한 집들을 예쁘고 동화 속처럼 아이들 방을 꾸며주는 장면을 보며 "와 우리집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하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마음 깊숙이 공감하며 보는 러브하우스는 대전충남본부의 사회공헌 담당인 나에게 남다르게 다가오는 TV 프로그램이다.
우리 한국철도공사에서도 코레일빌리지 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도배, 장판 기본적인 시공 정도의 집수리봉사를 꾸준히 활동하는데 그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본사 코레일봉사단에서 기존의 코레일빌리지를 발전시킨 '2011 코레일빌리지'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수렴 워크숍 참석을 알리는 공문이 왔다.
13개의 지역봉사단에서 각각 1000만원 예산 범위에서 코레일만의 러브하우스 사업을 진행해 보자는 것이었다. 빠듯한 예산, 많은 사업내용, 그리고 처음 접하는 교육 프로보노 사업 등을 포함한 2011년 코레일빌리지는 어렵고 풀지 못하는 숙제 같았다.

코레일빌리지

03

04

05

06

하지만 워크숍시 좋은 의견, 반대 의견이 쏟아지며 약 5시간 동안 열띤 토론 끝에 모두 힘을 모아 멋지게 잘해보자는 결론과 수혜대상자 선정, 사업진행 방법 세부사항들을 결정하게 되었다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 03

가장 중요한 것은 수혜자와 봉사자라는 생각에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의 협조로 4명의 학생들을 추천받아 그 중 코레일빌리지 사업에 적합한 한 가정을 선정하고자 본부장, 외부위원을 포함한 11명의 위원들을 모시고 진지하고 공정하게 선정위원회를 진행하였다.

9월 8일에 열린 선정위원회에서는 추천된 학생 4명 모두 환경이 열악하고 생활이 어려운 만큼 약 1시간가량의 진행 끝에 가장 필요하고 코레일빌리지 사업과 교육프로보노를 이어갈 수 있는 학생 한명을 선정하였다.

청각장애를 가진 할머니와 5학년 누나(박희진, 가명)랑 살고 있는 1학년(박희민, 가명) 학생이다. 엄마는 빚 9천만원을 남기고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다리에 장애가 있으며, 신용불량자로 취직조차 되지 않고 잘 때만 잠시 들어온다는 가정이다. 또한 그 학생들에게까지 부채가 남겨있어 희망을 잃을까 걱정이 보인다는 선생님의 애절한 사연이 가슴을 찡하게 했다. 선정위원들의 과반 수 넘는 찬성으로 희진이네를 선정하고 희진이과 희민이의 맑은 눈동자를 만날 날을 기다렸다.

함께 할 사회적 기업을 찾아…

학생의 고모님께 전화를 드려(할머니는 청각장애로 듣지도 말씀도 못하셔서 고모를 통해 내용을 전달했다) 공사 일정을 재차 전달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 그런데 그동안 집수리에 감사함을 인사하며 집수리가 끝날 동안 아이들과 할머니를 잘 보살피고 있겠다던 처음의 말과는 달리 고모네 아이들도 3명에다 8평도 안 되는 집에 5식구가 살고 있어서 맡겨주기가 어려워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 정말..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라는 한탄을 하고 있을 겨를이 없었다.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이러 저리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처장님께 상황을 보고 드리고 100만원의 예산을 더 투자하여 이삿짐센터에 짐도 맡기고 공사기간동안에는 지낼 거처를 마련해주기로 했다.

점점 추워지고 있는 날씨에 공사를 지체할 수 없어 주말을 이용하여 피곤하지만 나를 대신해 운전해 준 신랑과 주중 바쁜 일정으로 놀아주지 못한 아이들을 차에 태운 채 학생의 집 근처를 돌아다니며 아이들이 등하교 할 수 있는 거리에 숙소를 구해야만 했고 하루가 끝나 갈 무렵 드디어 적당한 숙소를 구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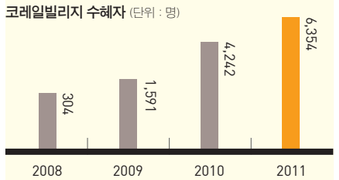
봉사단원의 구슬 땀방울로… – 0405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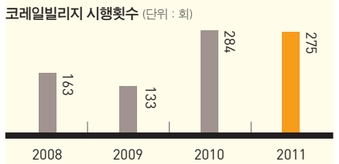
10월 24일 드디어 공사를 시작하는 날.

우리 직원들이 전기팀, 건축팀에서 4일간 쉬지 않고 공사를 했고, 특히나 까다롭고 복잡한 인테리어를 요구했던 내 의견에 맞춰주느라 손이 더 가는 작업들이 많았음에도 불평하지 않으시며 모두들 땀 흘리며 봉사해 주었다. 부족한 자재는 내가 직접 나가서 택시로 이동하며 구입을 하였

07

08





다. 역시 집수리는 쉽지 않다는 생각에 그동안 코레일빌리지를 꾸준히 해온 우리 봉사단원들에게 고마운 마음과 존경심이 우러나왔다.

4일간 빡빡한 여정의 공사가 다 끝나는 날, 재 이사는 밤늦게 이뤄졌다. 집에 돌아가는 시간은 21시. 뿌듯함과 누적된 피로, 그리고 아직 헌정식이 남았다는 긴장감에 축 쳐지는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가 잠을 청했다. 자려고 누운 침대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잠을 못 들게 하였다. 좁은 공간에 다 부서진 가구와 깨진 유리 문, 창문에 종이를 붙이고 추운 겨울을 지냈을 할머니와 아이들, 그런데도 그렇게 해맑고 밝게 웃고 있던 모습이 자꾸만 눈에 아른거리고 그 두 달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모르게 지나가버린 시간들을 다시 머릿속에 떠올리며 가진 것이 많아도 항상 부족해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는 나의 잠시 피로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나를 다독였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실없이 눈물이 흐르는지... 다음날 눈이 부을까 눈물이 자꾸 쏟아지는 것을 참았다.

땀방울이 할머니의 눈물로… – 0708

드디어 D-day. 헌정식이 열리는 10월 31일.

아침부터 학생의 집을 청소하고, 위문품으로 증정할 따뜻한 이불 그리고 학용품 등을 준비하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직원들이 보드판에 적어준 편지를 어떻게 하면 잘 보일지 위치도 몇 번 바꿔가며 놓아보았다.

그리고 풍선아트와 케익, 헌정열쇠를 준비하면서 왠지 모를 설레임과 즐거움에 웃음이 절로 나왔다. 사실 마무리라는 생각에 안도감도 있었고,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길 바라는 마음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었다. 본부장님과 처장님, 같이 고생하신 봉사회장님들을 모셨고, 교육청담당자와 교장선생님, 그리고 선생님들과 촬영팀까지 20명 정도가 작은 집에 모였다.

말씀을 못하시는 할머니는 무엇인가 계속 말하고 싶어보였고 자꾸만 눈물을 참고 계시는 게 보였다. 그냥 펑펑 울면 편할 텐데 감동의 눈물마저 참고 있는 할머니를 보니 나도 자꾸만 눈물이 나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 또한 뭔가 모를 감정이 자꾸만 복받쳐 눈물이 계속 쏟아져 나오려고 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선 그냥 뿌듯해 하고 울고 싶지 않아 눈물을 참고 웃으며 할머니 눈물만 닦아 드렸다.

2012 코레일빌리지는?

더 너른 세상으로 뻗어 나가는 코레일은 세상을 좀 더 꼼꼼히, 깊게 보기로 하자 코레일이 누비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또 다른 해야 할 일이 보인다. 커다란 대도시의 역에서도, 지방의 아담한 간이역에서도 우리의 이웃이 보인다. 우리의 산과 들이, 바다와 강이 전처럼 더 맑고 빛나야 함이 느껴졌다. 이제 레일은 소외된 이웃과 소중한 만남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한다.

2012년부터는 집수리 봉사인 코레일빌리지와 더불어 교육프로보노 2011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유관 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Korail Village

코레일빌리지

1. 서울본부 외 12개 봉사단

공부방 개설 · 학습 프로보노 활동 펼쳐…

소외계층 아동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철도연변의 저소득 계층의 집수리 봉사활동인 코레일빌리지를 한층 발전시켜 집수리는 물론 학업에 필요한 컴퓨터, 책상, 의자 등 교육자재 지원과 학습 프로보노 활동을 병행하였습니다.

전국 13개 봉사단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등의 추천자를 대상으로 자체 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정 8개소, 공부방 5개소를 선정하여 코레일빌리지를 추진하였다. 2011년 11월 4일 기아 · 결손가정 아동양육시설인 혜심원에서 「2011 코레일빌리지」 입주식과 장학금 전달 행사를 가졌습니다. 기존에 창고로 사용하던 공간을 봉사단원들의 땀방울로 개축하여 혜심원 및 지역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늑한 공부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특히 혜심공부방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숙명여대 학생들과 연계하여 교육 프로보노 사업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혜심원과 지역아동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철도와 연계하여 꿈과 희망을 줄 것입니다.

2. 충북본부 봉사단 _ 한빛봉사회

행복한 동행, 함께하는 행복체험 36.5℃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추천을 받아 제천시 청전동에 거주하는 김문배(47세)씨 댁에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김문배씨는 다니던 직장을 질병상의 이유로 퇴직한 후 일정한 소득

없이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고 있으며, 부인은 지적3급 장애인으로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이다.

거주환경은 아파트 옥상 방수처리가 되지 않아 흘러내린 물에 의하여 도배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봉사단원들은 안방, 작은방, 거실의 도배와 장판 교체, 전기설비 점검, 욕실도색 및 환경정리 등을 시행하였으며,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나눔의 보람에 힘든 줄도 모르고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3. 광주본부 봉사단 _ 보금자리 봉사회

情을 나누는 사랑의 집수리 봉사

광주시 북구 오치동에 거주하고 있는 1급 지체장애우 2가구를 찾아 전동휠체어로 상처가 많은 벽 및 장판 등을 교체하여 좀 더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선물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름자리 봉사회는 2005년 보금자리 1호로 첫 봉사활동과 인연을

> 전국의 철도 주변에 거주하는 극빈자와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진행하여 생활의 편의를 제공해 드립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와 따뜻한 마음을 코레일이 지어드립니다.

맺은 후 어느덧 사랑의 보금자리 15호의 명패를 달게 되었으며, 특히 지역 복지시설과 연계하여 더욱 더 많은 가정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봉사단원 모두 즐거운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4. 전북본부 봉사단 _ 사랑의 봉사회

독거노인 사랑의 집수리 활동 시행

익산시 함라면에 기초생활보호수급자이며, 고혈압과 퇴행성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한 이보이 어르신 댁을 찾아가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고, 주택 전면의 노후된 바람막이 설비를 새로이 설치하였으며, 노후된 전기설비 등을 안전하게 교체했습니다.

또한 부엌의 노후된 싱크대와 찬장, 수납장 등을 새것으로 교체해드리고, 할아버지의 식생활에 도움이 될 쌀과 라면 등을 기부했습니다.

이보이 어르신은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의 손을 하나하나 꼭 잡으시며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으며, 이에 집수리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한 봉사단원은 이보이 어르신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줄 수 있는 값진 땀방울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램과 함께 사회공헌 활동의 손길이 더 많은 수혜자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5. 대구본부 봉사단 _ 오르리 봉사회

다문화가정에 새봄맞이 사랑의 집수리 활동 펼쳐

대구본부 사랑채 1호로 지정된 다문화가정인 팜베남씨 댁을 찾아 새봄맞이 집수리 기술봉사활동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다문화가정 소외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사회의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공기업의 사회공헌 실천경영을 통한 온정의 손길을 담아 옥상 우레탄 방수, 거실반자, 출입문설치 및 도배장판 등 봉사회만의 숙련된 건축기술을 통해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6. 경북본부 봉사단 _ 경북본부 봉사회

소외계층에 집 단장 서비스

영주가흥종합사회복지관의 추천을 받아 소외계층인 한부모 세대 이명희님을 찾아 집 단장 서비스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온정의 손길을 담아 처마 채양설치(기존 낡은 채양 철거), 출입문 방충망 교체, 스레트지붕 누수부위 부분보수, 주방 통로 천정 반자보수 및 도배, 재래식 화장실 내 노약자용 좌변기 설치, 외벽 수성페인트 도장 등 건축분야 전문기술을 활용한 집수리 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봉사단원은 우리의 작은 손길이 따뜻한 마음으로 이어져 공사와 지역사회가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나눔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Lovely Farm Villages

농촌사랑

1. 서울본부 봉사단 _ Happy Korail 봉사회

'지역우수특산품 직거래 장터' 개장

한국지역진흥재단과 함께 서울역 광장에서 '농어민과 도시민의 상생을 위한 지역특산품 직거래 장터'를 열었습니다. 이번 직거래 장터에는 전국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우수 농특산품이 판매되었는데 35개 시군, 59개 단체가 참여해 300여종 품목을 시중가보다 10~30% 싸게 판매했습니다. 특히, 일본 대지진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화훼 직거래 장터도 마련되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우수한 지역 특산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를 통해 농어민과 도시민의 경제생활에 보탬이 되고, 농촌과 도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수도권동부본부 봉사단 _ 가평관리역 봉사회

이웃사랑愛 녹색생활 5愛 나들이

이번 봉사활동은 장마철 후덥지근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포도송이가 더 자라기 전에 병충해를 예방하고 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1,500평이 넘는 포도밭 넝쿨사이 헝클어진 포도 줄기를 헤쳐가며 포도송이 하나하나 농심의 정성을 담아 포도송이 봉지씌우기를 했습니다.
고령화되고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힘든 농촌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작년 추석연휴 전후 4차례 봉사활동에 이어 포도송이 하나하나 종이봉지를 싸는 일도 힘들고 중요한 일인 것을 느끼며, 장장 8시간 동안 남들이 쉬는 주말 털보네 포도농장에 뿌듯한 마음을 선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픈 허리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3. 대전충남본부 봉사단 _ 사랑봉사회

추석맞이 사랑의 송편 빚기 나눔이 행사

사랑봉사회는 농촌지역 자매결연마을 여성봉사대와 함께 추석을 앞두고 독거노인, 소외계층을 찾아 따뜻한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추석맞이 사랑의 송편 빚기 나눔 행사를 시행했습니다.
충청북도복지회관과 농촌지역 자매결연마을 여성봉사대와 연계해 외롭게 추석명절을 보내는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 행복한 추석명절을 보내기 위한 사랑의 송편 빚기 나눔 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백미 10말의 송편을 정성스럽게 빚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보탬이 되고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암리 주민과는 2009년 철도낙산연수원의 개원과 동시에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로 농촌일손돕기, 농산물 판매 지원, 어버이날 행사 및 연수원 부대시설 제공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농촌은 우리의 뿌리이자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안식처입니다. 봄、가을 농번기 일손돕기는 물론, '1사 1촌' 운동, 자매결연을 통한 특산품 판로개척, 직거래 판매장 등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드립니다."

소외계층과 추석명절을 쓸쓸이 보내야 하는 충북혜능보육원에 전달하여 지역사회에서 행복전도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4. 경북본부 봉사단 _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

농촌 기 살리기 '행복한 동행'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은 영주시 봉현면을 찾아 농촌 종합 사회봉사활동 '행복한 동행'을 시행했습니다.
지붕에서 물이 새는 집, 미장을 못해 흙벽이 내려앉고 있는 집, 어린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다문화 가정, 몸이 불편한 조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우리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경북본부 봉사단의 행복 바이러스가 널리 퍼진 하루였습니다.
또한, '내고장 문화재 우리가 지킨다!'라는 슬로건 하에 소중한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아끼고 보존하는 문화재 지킴이 운동에 동참해 봉현면 노좌리 노계서원 입구부터 무성한 잡초를 말끔히 제거했습니다.

5. 강원본부 봉사단 _ 강원본부 봉사회

레일로 이어지는 행복 소통 바이러스 전파

농번기를 맞이하여 일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현면 정암2리 어르신들에게 보탬을 주고자 농촌일손돕기를 시행하여 정암2리 이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과 함께 모종 옮겨심기를 지원하며 주민들과

6. 충북본부 봉사단 _ 레일로 사랑으로 봉사회

추석맞이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참여

레일로 사랑으로 봉사회는 추석을 앞두고 정선군 장수마을에서 봉사단원 2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일손이 부족한 관내 농촌마을을 찾아 콩밭메기 등 농촌일손돕기와 마을 주변 제초작업을 시행했습니다.
장수마을 주민들과 정선군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일손이 모자라 걱정이었는데 코레일 직원들이 와줘서 여러모로 큰 힘이 되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일손돕기가 지역주민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될수 있기를 바라면서, 불우이웃을 위한 연탄배달,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활동 등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갈것입니다.

Door to Door

방문봉사 · 일반복지

1. 부산철도차량정비단 봉사단 _ 돋을볕 봉사회

팔순 맞으신 어르신에게 '장수사진' 전달

돋을볕 봉사회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비롯해 정서적인 소외감과 외로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마련한 '제13회 저소득 독거어르신 팔순잔치'에 참석하여, 팔순을 맞으신 어르신들을 위한 선물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라는 의미에서 '장수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전달한 사진은 돋을볕 봉사회에서 팔순을 맞으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미리 장수사진을 촬영하여 품위 있는 액자에 담아 준비했으며, 비록 어르신들의 집까지 찾아가서 사진관까지 모셔오는 과정이 힘들긴 했지만 선물을 전달하고 기뻐하시는 어르신들의 표정에 봉사단원 모두가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선물이 되었답니다. 이번 행사는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주관, 지역인근 소외계층인 독거어르신 및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봉사(주4회)를 하고 있는 돋을볕 봉사회와 지역의 권위있는 봉사회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 수도권동부본부 봉사단 _ 사랑의 기적소리 봉사회

기적소리에 실어 전해진 사랑의 메아리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사랑의 기적소리 봉사회는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복지관 3층 강당에서 펼쳐진 오케스트라의 공연과 함께 시작된 오프닝 행사를 필두로 카네이션 달아드리기를 비롯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귀한 행사에 힘을 보탠 봉사단원들은 마치 내 부모를 모신 듯 마냥 웃음꽃을 피우며 내내 아름다운 만남을 이어 나갔으며, 점심 오찬에는 무려 750여명이나 식사를 함께하여 배식과 설거지 등 예상보다 버거운 일정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얼굴에는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마무리 행사로 준비된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를 관람하는 동안에는 서로의 손을 마주 잡으며 코 끗이 찡한 사랑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3. 부산경남본부 봉사단 _ 어울림봉사회

후원가정 8세대 후원물품 전달

대구시 동구 소재 '대구동촌 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후원가정(8세대)을 방문하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생필품을 전달하고 간단한 청소와 안마 등 말벗 봉사 등으로 보람된 하루를 보냈습니다.

후원가정 위문물품 전달을 통해 그동안 바쁘게 생활하면서 잊고 있었던 주변 불우 이웃을 돌아볼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작은 일이지만 기뻐하고 감사해주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지속적인 활동과 더 많은 봉사단원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4. 대전충남본부 봉사단 _ 사랑봉사회

사할린 영주귀국 소비자교육 및 관공서 이용체험 실시

사랑봉사회와 오창읍사무소는 공동으로 사할린 영주귀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YWCA 연계 소비자교육 강사를 섭외하여 소비자교육를 실시하고, 오창읍사무소의 지원으로 각종 민원처리 교육과 체험을 시행했으며, 목령종합사회복지관 식당에서 사할린 어르신들을 위한 맛있는 점심준비와 정성을 담은 배식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사할린 영주귀국 어르신들은 우리나라 YWCA 소비자교육 전문 강사의 교육을 통해 고국의 소비문화와 경제생활에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오창읍사무소 직원의 민원창구(서류 종류, 발급 과정 등) 이용에 대한 교육과 실제로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져 각종 민원서류를 익힐 수 있는 능력 향상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할린 영주귀국 노인의 지역사회 내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인 'I LOVE KOREA'가 2011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으로 선정되어 사랑봉사회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모두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하게되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이웃, 외국인 이주여성, 빈곤층 근로자, 독거노인들이 겪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해소해드리고, 정서적으로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코레일 임직원이 기꺼이 발품을 팔아 찾아갑니다."

5. 전기기술단 봉사단 _ 달빛봉사회

성재원 장애인과 따뜻한 산행 가져

달빛봉사회는 평소 바깥나들이가 어려운 대전시 소재 성재원 장애인들과 보문산 산행을 통해 비록 땀을 흘리고 힘든 고비도 있었지만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호흡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봉사단원들은 장애인과 첫 만남에 두려움이 앞섰지만 장애인들이 즐거워하고 직원들과 하나됨을 느끼는 순간 좀전의 걱정은 설레임으로 바뀌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기도 하였고, 더불어 직원들도 업무에서 벗어나 대자연의 품에 잠시나마 머물러 있을 수 있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달빛봉사회는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은 봉사활동의 날로 지정하고, 약자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6. 전북본부 봉사단 _ 전북본부 봉사회

장애인 탁구대회 심판과 점심지원 봉사활동

익산시 공설운동장내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2011 익산시 장애인 탁구대회'에서 심판과 보조심판으로 활동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탁구공을 줍기 힘든 장애인들을 도와 원활한 경기운영을 지원했으며, 점심시간에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점심식사 보조 및 행사 종료 후 경기장 청소 자원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인 체육활성화를 위한 이 대회가 우리사회에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7. 광주본부 봉사단 _ 이웃사랑회

복지관 어린이 초청 기관차 운전 체험 등 시행

이웃사랑회는 우산종합 사회복지관 어린이들을 초청해 기관사 일일체험으로 어린이들이 직접 기관차를 시승해 운전해보는 체험행사와 우치공원에서 놀이기구 체험 행사를 시행했습니다.

이웃사랑회는 1996년 7월에 6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 · 발족해 15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생활보조비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5~6명의 소년소녀가장을 돌보고 있으며, 광주 북구 우산동 종합사회복지관과 협의체계를 구축해 매년 저소득 및 결손가정 아동들에게도 각종

Door to Door

방문봉사 · 일반복지

학습 체험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혜자 어린이들의 고마워하는 미소와 티없이 맑은 웃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자부심과 기쁨이 배가되어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시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8. 대구본부 봉사단 _ 나눔봉사회

지역사랑 희망도서 나눔 프로젝트

평소 아동복지와 독서에 큰 관심이 있었던 나눔봉사회는 지역사랑 희망도서 나눔 프로젝트인 '달려라! 꼬마열차 붕붕(BOOK BOOK)' 나눔활동을 기획하여 소외된 아동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브랜드화를 추진해 지역 대표 사회공헌활동으로 정착, 확산시키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구미종합사회복지관 황상지역아동센터를 찾아 희망도서 150권을 기증하고, 간식이벤트를 열었으며 직원들이 직접 산타와 루돌프로 분장해 멋진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아이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동센터장은 책 맨 뒤쪽에 손글씨로 적혀 있는 희망의 토막글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고, 봉사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책을 추천하고 희망의 토막글을 적어 기증해 주신것에 대하여 한분, 한분의 마음을 고스란히 간직하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나눔봉사회는 내년부터 연4회 이상 정기적으로 희망도서 나눔을 시행할 예정으로 '달려라! 꼬마열차 붕붕(BOOK BOOK)'이 힘찬 기적을 울리며 구미 지역을 방방곡곡 누비며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삶의 지혜와 지식을 선물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의 추진과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강화를 통해 구미지역의 빛과 소금이 될것을 약속했습니다.

9. 서울본부 봉사단 _ Soul Touch 봉사회

푸드뱅크 통해 식품나눔 봉사활동

지역사회인 은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를 통해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봉사단원들의 온정의 손길로 모아진 '사랑의 성금'을 활용하여 사랑나눔 및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식품나눔 봉사활동을 시행했습니다.
특히, 복지관 인근 학교가 방학을 하는 방학기간 동안 양질의 식품 수급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봉사단원들의 장기적인 지원으로 여름기간 동안 소외계층에게 식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일회성 이벤트 보다는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일상에서의 사회공헌이 자래매김할 때 진정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것을 확신하며 지속적인 지역사회로의 환원을 약속했습니다.

Cultural Exchange

문화교류

1. 서울본부 봉사단 _ 누리보듬회

다문화가정 부부 전통혼례식

용산역 맞이방에서 다문화가정의 사실혼부부 한 쌍을 위한 전통혼례식 행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결혼식 참가희망자의 사연을 공개모집하여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 문화적 차이를 겪고 있지만, 사랑으로 극복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 가고 있는 신랑 윤용복과 신부 린루이웬(중국)의 사연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전통혼례식은 일반적인 서양식 결혼식과 식의 진행순서 등이 많이 다르고 생소하여, 하객들은 물론 용산역을 찾은 고객들에게도 흔치않은 볼거리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날 결혼식을 치른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살 것이라 생각했는데 평생 잊지 못할 결혼식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비록 전통혼례식이라 준비과정의 어려움도 많았지만, 결혼식 행사를 무사히 마치고 부부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봉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폭넓은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2. 대구본부 봉사단 _ 대구본부 봉사회

'행복나눔 바자회' 개최

성서종합사회복지관 푸르미 봉사단과 함께 동대구역 광장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복나눔 바자회'를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였습니다.
코레일 대구본부 직원과 성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증한 의류, 책, 가방 등 3천여점의 다양한 물품이 판매되며, 깜짝 행사로 인기 연예인이

직접 기증한 연예인 물품 판매 코너가 마련되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행사의 수익금 중 일부는 생계가 어려운 다문화여성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계획으로 직원들이 소중하게 기증한 물품으로 나눔행사를 통해 환경도 지키고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3. 수도권서부본부 봉사단 _ 밀알사랑 봉사회

찾아가는 이미용 봉사로 따뜻한 나눔 전개

새봄을 맞아 다문화가정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따뜻한 나눔의 실천을 행하고자 외국인 주민센터를 찾아 이미용 봉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미용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찾아가는 이미용 봉사' 활동을 펼치며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코레일의 마음을 전하고자 2007년부터 정기적으로 매주 화요일에 독거노인과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활동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Cultural Exchange

문화교류

4. 부산경남본부 봉사단 _ 참샘회

3대 트리플 한마당 큰잔치

참샘회에서는 지역의 독거 어르신들을 직접 모시고 시설 어린이들과 함께 '3대 트리플 한마당 큰잔치'라는 행사로 아름다운 만남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어르신들과 아이들, 봉사단원들이 함께 손에 손잡고 흥겨운 노래로서 마무리 하는 시간에는 가족의 훈훈한 정을 느끼게 하였고, 헤어지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아쉬워 서로 고맙다고 손을 꼭 잡으시고 자리에 머무르시는 모습을 보여서 내내 가슴이 뭉클해지는 하루가 되었답니다. 시간이 갈수록 어르신들을 동심에 빠져들게 하는 시간을 가졌는가 하면 어르신들은 노래자랑으로 끼를 발휘하기도 하고 풍물놀이 등 아이들의 장기자랑에 흥겨워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나이를 잊고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5. 홍보실 봉사단 _ 홍보실

사랑의 축구 교실 · 급식봉사 '호응'

2011년 전국 체육대회에서 우승한 코레일 축구단과 홍보실 봉사단원은 대전 유성구의 성세재활원을 방문하여 실내 체육관에서 '사랑의 축구교실'을 얻어 재능 기부를 실천했습니다.
코레일 축구단 선수들은 축구공으로 개인기를 보여주어 원생들의 눈길을 끌었고, 원생들이 직접 승부차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자신감을 북돋아줬습니다.
특히, 원생들과 함께 미니 축구시합도 벌여 즐거운 추억을 함께 했습니다. 이날 재능 기부행사에 앞서 코레일 축구단은 코레일 홍보실 봉사단원 20여명과 함께 점심 급식과 생활관 청소도 하고, 원생들과 다양한 놀이와 장기자랑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6. 대구본부 봉사단 _ 행복스테이션봉사회

행복나눔 릴레이 팜스테이 농촌체험

행복스테이션봉사회는 성서 종합 사회복지관 소속 주간보호센터 장애인과 다문화가정(이주여성)을 초청해 팜스테이 농촌체험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단방향 봉사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수혜계층의 사회공헌활동 동참을 통해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치를 공유해 나눔 확산에 기여하고자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수혜계층 또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접하고 이번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으며, 이미 계획했던 장애인 체험활동에 다문화가정을 함께 초청하여 릴레이식 봉사활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12명과 이주여성 8명, 봉사단원 20명이 함께 참여하여 농가가 직접 허브를 활용하여 생산한 천연비누 및 인절미 만들기, 농촌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답니다.

> 소외계층들에게 문화 및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 체험기회에 대한 격차를 줄이고 튼튼한 몸과 마음으로 삶의 의지를 북돋게 도와드립니다.

7. 수도권동부본부 봉사단 _ 행복더하기 봉사회

사랑더하기 김치나누기 행사 시행

봉사단원과 녹색생활실천단이 함께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더하기 김치나누기 행사를 시행하여 동대문지역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95개구와 다문화가정 10가구,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인 하늘꿈터 등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사랑과 정성으로 만든 김치 1,200㎏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추운 겨울을 보내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8. 충북본부 봉사단 _ 한마음 봉사회

맑은누리 실버한마음 잔치

한마음 봉사회는 봉사단원 30명과 자원봉사자 50명이 함께 제천 명락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약 350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신명나게 소통하고 어울림으로써 외로움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자는 취지로 배식도우미, 경로잔치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레일로 밴드의 공연을 시작으로 행사를 시작하였으며 밴드 공연에 이어 김용수 충북본부사회봉사단장이 약 1시간동안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 공경의 마음으로 특강도 시행하였습니다.
밴드공연과 특강을 마치고 봉사단원들은 식당으로 이동하여 위생복장을 착용하고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쌀밥과 정성껏 준비한 밑반찬을 배식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옆에 앉아 식사를 도와드리며 즐거운 점심식사를 가졌답니다.

Environment Protection

환경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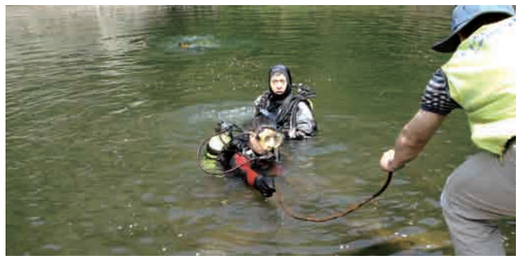
1. 수도권서부본부 봉사단 _ 환경지킴이

'지구의 날' 기념 안양천 정화활동

41주년 '지구의 날(4.22)'을 맞이하여 녹색생활을 나부터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제1회 녹색성장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안양천 일대에 대하여 구로구청과 관내 환경단체 등과 합동으로 버려진 쓰레기 등을 정화하였고 무질서한 쓰레기 투기 방지에 대한 홍보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100여명은 하천오염을 방지하고 주변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지구를 위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하천에 들어가 수중쓰레기 및 둔치에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제거하는 등 안양천 정화활동에 몸을 아끼지 않고 약 2톤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했습니다.

2. 경북본부 봉사단 _ 시설처 봉사회

내 고장의 물은 우리가 지킨다.



경북본부 스킨스쿠버 동호회 회원들은 한국농어촌공사 영주 · 봉화지사와 공동으로 '2011 내 고장 물 살리기'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내 고장 물 살리기' 수중 정화활동은 2007년부터 매년 환경의 날 전후를 기해 영주 · 봉화지역 저수지 수중에 산재한 폐기물 수거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으로 순흥면 저수지 수중 폐기물 50㎏을 수거했고, 농어촌공사 영주 · 봉화지사와 합동으로 시행한 저수지 주변 환경정화활동에서는 80㎏의 폐기물을 수거했습니다.

3. 서울본부 봉사단 _ 누리보듬회

전자쓰레기 제로운동에 함께하는 활동 펼쳐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주관하는 '제4회 소형전기전자쓰레기 제로의 날' 행사에 소형전기전자폐기물을 수거하여 참여했습니다.
'소형전기전자쓰레기 제로의 날' 행사는 소형전기전자제품 사용이 최근 급증하면서 소형전기전자폐기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와 적극적 참여 유도를 통해 당해 폐기물의 재활용가치와 적정처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회수에 참여하는 캠페인입니다.
이날 전자쓰레기 제로운동에 동참한 직원들은 용산역에서 수집한 건전지, CD, 휴대폰 등 소형전기전자폐기물을 주최측에 인도하고 학생과 시민들에게 당해폐기물의 재활용가치와 적정처리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동참했으며, 전자쓰레기설치미술 퍼포먼스를 함께 하면서 행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 코레일은 매년 전사적인 환경보호활동으로 자연과 함께 성장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코레일 전 임직원은 환경지킴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친환경 녹색 코레일로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4.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봉사단

재활용 환경비누로 환경을 지킨다.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사회봉사단은 환경의 날(6.5)을 맞이하여 폐식용유를 모아두었다가 환경비누를 만들어 환경보호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와 사회공헌 일환으로 2008년부터 시작된 재활용비누 만들기는 정비단내 구내식당에서 음식을 조리 후 버리는 폐식용유를 세탁비누로 재생산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폐식용유 약 72리터로 세탁비누 120개를 제작하여 인근 일산홀트복지센터에 기증하였습니다.

5. 부산경남본부 봉사단 _ 시나브로봉사회

자연보전활동 '1사1산1하천 가꾸기 운동' 시행

환경보호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통한 사회공익을 실현하여 철도의 대외이미지를 제고하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Green Growth) 정책에 부응하여 녹색실천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연보전활동 '1사1산1하천 가꾸기 운동'을 시행했습니다.
1산1하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두척계곡과 갈뫼산 곳곳에 쌓여있던 쓰레기를 수거하고, 하천주변에 자라고 있는 잡초와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작업도 함께 병행하면서 1차적으로 기본적인 환경보호활동을 벌인 뒤, 2차적으로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EM 흙공 던지기 활동을 펼쳤습니다.

6. 대전충남본부 봉사단 _ 밝은빛 봉사회

가을철, 쾌적하고 청결한 산 만들어요

대전 시내 계족산 일원에서 봉사단원 120여명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가을철 환경보호 실천 캠페인을 전개하여, 계족산 공용 주차장 주변과 산림내에 버려져 있는 각종 오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운동을 시행하여 친환경 녹색철도 이미지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산행 시민과 농민을 대상으로 가을철 환경오염 주범인 산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한 계도를 동시에 벌였습니다.

Various Activities

기타사업

1. 서울본부 봉사단 _ Happy Korail 봉사회

수해 피해 주민에게 희망을

Happy Korail 연합봉사회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사상 최악의 수해 피해를 입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일대 수해피해현장을 찾아 피해복구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파주시 설마리 일대는 집중호우 당시 3일간 700mm(파주 평년 강우량 1,390mm)의 물폭탄이 쏟아져 설마천이 범람했으며, 주변 가옥이 침수 및 붕괴되고 도로와 하천 둑이 유실되는 등 많은 재산피해를 입었다. 뜻깊은 봉사활동에는 '누리보듬회'와 'Happy Korail' 봉사회가 주축이 되어 '건축사랑나눔회', '하나로봉사회', '사랑의 기적소리회' 등 많은 봉사회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50여명의 봉사단원이 동참했으며, 수해 현장에 도착한 'Happy Korail 연합봉사회' 봉사단원들은 이장님의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지역에 4개 조로 나뉘어서 침수 가옥 및 농경지 토사 제거, 가재도구 정리와 세척 등 신속한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으로 구슬땀을 흘렸답니다. 또한 수해복구 자원봉사와 함께 파주시와 자원봉사센터에서 수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도배지와 장판 등 500만원 상당의 긴급 구호물품도 전달했다.

2. 코레일사회봉사단

헌혈로 '생명을 나눕시다' KBS 1TV 특별생방송 참여

코레일 사회봉사단은 KBS 1TV 공사창립 특별생방송 프로그램인 '생명을 나눕시다' 헌혈행사에 참여하여 헌혈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데 동참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겨울 한파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의 여파로 단체 헌혈이 급속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동절기에 국가적 혈액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코레일 사회봉사단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서울 · 서부 · 동부 등 수도권 3개 본부 봉사단원과 코레일 기네스에 헌혈 기록을 보유한 대부본부 봉사단원 김달호 소장(포항차량사업소) 등 56명이 함께 참여하여 소중한 생명나눔을 몸소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재해복구, 청소년 자원봉사, 헌혈 등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들을 비영리단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대전충남본부 봉사단 _ Green 봉사회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

조치원역 광장에서 연기군 청소년들의 문화적 열정을 발산하는 '2011년 연기군 청소년 문화존 열정콘서트'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조치원관리역과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마을연기군지회, 연기청소년자활지원관, 연기종합사회복지관의 주관과 여성가족부, 충청남도, 연기군 등의 후원으로 시행되었으며 지역 청소년 및 지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문화존은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담아 끼와 열정을 발산하는 공연으로 진행되었으며, 11개 팀이 참가해 댄스, 노래, 장기자랑 등 청소년들이 준비해온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조치원관리역과 '연기군 청소년 문화의 존'에서는 매월 셋째주 토요일을 문화존의 날로 지정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상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철도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합해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문화 · 예술 대중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 문화가 있는 공간이 Gathering Station으로서 역할을 담당해 나가겠습니다.

4. 광역철도본부 봉사단 _ 광역철도본부

집중호우 피해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눠요

광역철도본부 사회봉사단 40여명은 집중호우 시 산사태와 북한강 범람으로 가옥이 파손되고 농경지 침수 피해를 입은 수해현장(가평군 설악면)에서 복구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틀 간 시간당 최고 49㎜의 물폭탄이 쏟아진 설악면 수해현장은 가옥이 침수 및 붕괴되고, 농경지가 유실되는 등 많은 재산 피해를 입었고, 현장에 들어선 봉사단들은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참담한 모습에 놀랐지만,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토사를 제거하고 물을 퍼내며 가재도구를 정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날 뜻밖의 지원을 받은 피해 주민들은 휴일도 반납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복구활동에 신속히 나서준 코레일 사회봉사단에 고마움을 전하며 하루 빨리 수해의 아픔을 이겨낼 것을 다짐했습니다.

행복역에 도착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고 손수 참여하고
나눔으로써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주는 사람이 더 즐거운
KORAIL의 종착역은 언제나 행복역입니다.
어른들의 흐뭇한 미소와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는 나눔열차,
소외된 곳을 찾아 전국을 누비는 희망철도,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행복역, 더 가까이 함께하는 KORAIL이 되겠습니다.

민규의 첫 바다!

용산역

허주회

내 인생 처음으로 바다를 보았던 날은 언제인가?

작은 가슴으로 바다를 품에 안았던 기억은 아빠 품에 안겨서였다. 백사장위에서 자꾸 넘어져 파도가 무섭다고 보채던 어린 시절. 어마어마하게 깊고 푸른 바다는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숨이 찬 곳이었다.

뇌성마비, 지체장애, 다운증후군 등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 대한 흔한 편견은 나에게도 있었다. 나도 아이가 둘 있는 엄마이지만, 장애우나 그 부모에 대해서 한 번도 깊게 생각해본 적은 없었다. 다만 안됐다... 그렇게 느꼈을 뿐. 세상의 큰 불행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음을 다행으로 여기며 살았다.

2011년 7월 28일. 아침에 퇴근하는 날이었다. 맞이방 유리지붕 위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푸르게 보였다. 좋은 예감이 들었다. 하나 둘 부모 손을 잡고 들어서는 아이들이 보였다. 몸은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지만 표정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해 보였다.

평생 가까이 접해보지 못했던 장애우 70여 명이 기차를 탄다고 모여 있었다. 여행의 설레임, 떠난다는 기쁨에 모두들 환한 얼굴이었다. 나도 역무원이지만 가끔 열차를 탈 때는 마음이 가볍고 즐겁다. 이 업에 종사하는 나도 그러한 마음인데 기차를 처음 타보는 아이들 마음이 오죽하랴... 그 아이들의 들뜬 얼굴에 내 아이의 얼굴이 오버랩 되면서 어느새 엄마의 마음이 되었다.

아이들의 순진함은 초면의 어색함을 금방 걷어갔다. 장애 어린이들을 인솔한다는 부담은 사라지고 어느새 함께하는 즐거운 여행이 되어 있었다. 내 아이, 내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만이 즐거울 줄 알았는데 장애를 가진 낯선 아이들과의 여행을 즐기고 있는 나를 발견하였다.

"누나…"

민규가 나를 그렇게 불러주었다. 13살 다운증후군을 가진 녀석이 처음으로 말을 걸어왔다.

"아줌마 아니고 누나라고 불러줘서 고마워…"

웃음으로 대답해주자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그 아이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 담겼다. 이심전심. 안스러운 마음, 그래도 어린아이의 예쁨을 칭찬해주고 싶은 내 마음이 전달되었는지 민규도 나를 따르기 시작했다. 민규의 어머니도 내가 아이엄마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을 터놓았다.

드디어 바다에 도착했다.

대천역에 도착하여 버스를 연계, 우리는 드디어 바다에 왔다. 열차에서, 버스에서 풀린 아이들은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바다로 달려갔다. 어떤 아이는 큰 강이라고 했고, 잘난 척 하듯 바다라고 알려주는 아이도 있었다. 그런 아이들이 마냥 귀여웠다. 파도를 쫓아갔다가 무서워 도망가고, 이미 바닷물에 옷을 버려도 그저 즐거운 아이들의 웃음과 익살이 한 여름의 태양 아래 반짝였다.

민규는 바다를 처음 보는데도 크게 무서워하지 않았다. 옷은 이미 다 젖어서 엄마가 말리는데도 다시 바다로 뛰어 들어가고, 봉사회 깃발을 이리 저리 흔들고 다니며 그날의 행사를 만끽했다.

'바다야… 네가 오늘 민규의 첫 바다란다. 너에게도 민규는 처음이겠구나. 오늘같이 뜨거운 태양과 그 보다 더 빛나는 민규의 웃음을 기억해주렴. 나는 오늘 하루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겠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힘들지 않게 민규의 앞날을 잘 보살펴 주었으면 좋겠구나…'

바다를 배경으로 만세를 부르고 있는 민규의 사진을 보면 그날의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곤하게 자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도 천사 같았다. 오늘이 지나면 우리는 관련 없는 사람이 된다. 세상에서 보기 드문 불행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가족들은 그 아이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간다. 욕심이라면 그저 건강을 바랄 뿐. 이 세상이 장애아들이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

불립문자

수색차량사업소
허 재 원

최근 나를 스쳐지나갔던 많은 것들 중 의미 있는 것을 꼽으라면 그 중 하나는 사회복지시설 지체부자유 노인 목욕봉사활동일 것 같다. 처음에는 그냥 우리 직장 동료가 시행하던 봉사활동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친구가 "목욕 중에 할아버지들이 괄약근이 약해 대소변을 푹푹 싸시는데, 냄새 조심해라!" 라는 농담 반 걱정 반의 말에 '내가 그런 일 하나 못하랴' 라는 호승심도 일어서 흔쾌히 따라 나섰음도 고백해야겠다.

하지만 나의 열의만큼 수월치 만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평소 비위가 그렇게 좋지 않은 나는 처음의 호기와는 달리 직장 동료의 협박(?)의 말에 벌써부터 지레 겁이 나기도 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정말 처음 노인 분들을 목욕시켜 드릴 때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을 만큼 힘들고 비위가 많이 상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 사실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목욕을 시킬 때 너무 힘들어서인지 욱하는 마음에 지금 생각하면 몹쓸 생각이지만 '이 일을 꼭 내가 해야만 하는가?'라는 회의가 들기도 했던 듯하다. 첫날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향할 때는 '과연 이곳을 다시 흔쾌히 방문할 수 있을까' 라며 자못 불안하게 생각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꽤 오랜 시일이 지난 지금 단 한 번의 결석 없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다.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니 한 번 한 번의 경험이 쌓일 때마다 나름대로의 내공(?)이 생기고 또 그곳에 계신 할아버지들과 정이 들어서이다.

이제는 정말로 그곳을 향하는 발걸음이 부담감이 아닌 기쁨으로 다가온다. 우리의 자그마한 힘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여서 가능한 우리 목욕 봉사회원의 한 사람인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다. 내게 이처럼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점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한 분 한 분 노인 분들의 몸을 구석구석 정성껏 닦아드린다. 우리 회원들의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힐 즈음에 당신들께서 한 마디 해주시는 "아~ 정말 시원하다! 당신들이 내 아들 딸보다 낫수다! 철도공사 직원들 정말 고마워요 ^^;; " 이 한마디는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벅찬 감동이 아닐 수 없다. 어쩌면 지금껏 나를 이곳으로 향하게 한 원동력의 실체가 그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아니, 사실 우리가 그분들에게 무엇인가를 베풀고 해주러 간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사실을 나는 잘 안다. 우리 봉사회원은 힘든 목욕을 마치고 늘 일산역 앞의 만두집에서 열차를 기다리며 만두를 먹곤 하는데, 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만두를 맛보게 해주시는 분들이 당신들임에 분명하다. 어쩌면 우리는 사회생활 및 직장에서 알게 모르게 받는 온갖 스트레스 등의 찌꺼기를 이곳에 와서나마 굵은 땀방울로 승화해 버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여기 계신 노인 분들의 소원 내 몸 내 스스로 한 번 닦아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동안의 내 소원들은 너무나도 사치스럽고 부질없는 것임이었음을 반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인생의 뒤안길로 접어드는 당신들을 통해서나마 세상의 집착과 욕심을 훌훌 털어버리고 이 한 세상 서로 웃고 사랑하며 베풀면서 멋지게 사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나에게 한 가지라도 가르침을 준다면 그것이 비록 길거리의 돌맹이일지라도 선생님이라는 말이 있다. 비록 그곳의 노인 분들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위의 가르침을 주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늘 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비록 몸은 조금 고단할지언정 너무나도 차오르는 충만감을 만끽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 존재 자체가 큰 가르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불립문자(不立文字)라고 했던가! 진리는 말로서 온전히 표현할 수 없기에 말 없는 당신들의 가르침이야 말로 진리였음을 이제야 비로소 알겠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전통혼례

용산역
김 소 연

2011년 5월 17일은 저에겐 무척 의미있는 날이었습니다. 매해 돌아오는 생일이기도 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동반자와의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준 날이기도 했으니까요.

용산관리역 누리보듬화는 2011년 사회공헌활동 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 아직 결혼식을 치루지 못한 부부에게 결혼식을 선사해주기로 했습니다. 제2의 탄생이라 할 수 있는 결혼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축복받고 일생을 약속하는 결혼식에 대한 추억도 결혼생활에 큰 버팀목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제일 처음 해야 할 일은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용산역 관할 구청인 용산구청으로 전화를 하니 다문화가정 업무를 위탁 받고 있는 용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소개해 주었고 대상자로 신랑 윤용복, 신부 린루이웬(중국)을 추천받았습니다. 그 후, 담당자와 함께 일정, 전통혼례 예행연습과 사진촬영, 신혼여행 등 다양한 부분을 협의해 나갔습니다.

'대상자 선정이라는 큰 난관 하나를 넘었구나' 하는 안도에 이어 전통혼례 경험이 없는 봉사단원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혼례복이나 각종 집기류, 촛대 등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막막해진 것입니다. 그 때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접하게 되었고 명동이나 대학로에서 주말에 정기적으로 전통혼례 시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정 외국인 신부라면 한국의 전통문화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그 분도 전통혼례를 통해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고, 한국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 봉사대원들은 한국문화재보호재단과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이번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찬을 받기로 했습니다.

전통혼례식에서 그치지 않고 신랑, 신부에게 좋은 추억을 더 선사해 주기 위해 페백사진과 웨딩드레스를 입고 찍는 실내웨딩촬영, 부산 신혼여행까지 무료로 제공해주기 위해 용산역에서 가까운 예식장과 용산역 여행센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겨우 혼례를 위한 기본 장소와 물품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 실제 혼례를 치르는 연습을 우리 봉사대원들이 할 차례입니다. 대부분 기혼자였지만 전통혼례를 했던 사람이 없기에 예행연습과정은 고달프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신부 수모는 신부와 함께 절을 여러 번 해야 하기에 긴 치마를 밟아 쓰러지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야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보다 훨씬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랑 신부에게 평생 남을 소중한 결혼식을 선물해 줄 수 있다는 기쁨으로 열심히 연습하며 동선을 외우고 기본 순서들을 파악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당일. 예식 30분 전 다시 한 번 맞이방 식장 세트에서 리허설을 한 후, 한복의 옷매무새를 다듬고, 신랑 · 신부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화려한 혼례복에 연지, 곤지 화장을 한 신부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20여분의 식이 끝나고 환한 표정으로 기념촬영을 하는 신랑, 신부와 가족들. 감사 인사를 받으면서 되려 제가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약 2달간 각종 섭외와 진행, 그리고 전통혼례 연습까지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고 모두 새로운 경험이었지만, 그 두 분의 행복한 모습에 그 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이 충분히 의미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5월 17일 제 생일마다 그 부부를 떠올리게 되겠지요. 중국에서 시집와 낯선 한국에서 어려운 형편에도 너무나 밝게 웃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던, 그 부부를 말이지요.

이제 곧 결혼식 1주년이 될 두 분에게 안부를 묻고 싶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죠? 평생 동안 꼭 잡은 두 손 놓지 말고, 더도 덜도 말고 결혼식 때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행복의 웨딩드레스

이 글은 서울역 맞이방에서 결혼식을 올린 신랑 홍성국과 신부 틴틴한이 결혼식 후 보내준 감사의 편지내용입니다.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체 살아가던 베트남에서 온 이방인, 낯선 땅에서 느낀 신부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글이며 신부 틴틴한이 한글을 모르는 관계로 봉사자가 대필하는 방식으로 작성됐습니다.

수혜자

틴틴한

닦고 또 닦고 흐뭇한 마음에 감사한 마음에 자꾸만 사진을 닦으십니다.

봄날의 빛이 고운 그 날!

어머님께서는 곱디고운 한복을 입으시고 수줍은 웃음으로 사진 앞에 섰습니다.

코레일에서 주체한 다문화가정 테마 결혼식에 선정이 되셔서 평생의 소원인 큰 아드님의 결혼식을 보시게 된 그 날!!

어머님께서는 새색시처럼 고우셨습니다.

평생의 한이 된 두 아드님의 장애 앞에 어머님은 많이도 애태우셨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큰 아들의 결혼식은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도움과 사랑 덕분에 어머님은 오늘 큰 아들의 결혼식을 보게 된 것이 마치 꿈만 같습니다.

지독한 멀미도 어머님에게는 걱정거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저 결혼식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어머님께서는 많이도 감사하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흐뭇한 그날의 모습은 고스란히 사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참으로 부족한 것뿐 일겁니다. 그러나 그 곳에는 서로를 생각하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여름내내 빈 병과 고물을 주워 팔은 돈 만 삼천 원을 고이고이 접어서 어머님께 드리는 따뜻한 아들의 사랑도 있고, 바다 건너 온 며느리를 위해 어머님께서는 고추를 따 오셔서 그 속에 두부를 넣어서 튀겨 주면서도 돼지고기를 조금 못 넣은 것을 안타까워하며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 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의 장애가 내 탓인 줄 알고 안타까워하시며 사신 어머님께 이제는 큰 며느리가 생겼습니다. 그런 큰 며느리가 어머님은 참으로 곱고 고맙지만 결혼식은 감히 엄두도 못 내셨습니다. 그저 아들방에 큰 결혼사진 한개 걸어놓고 싶을 뿐인데 그것이 어머님께서는 소원이 되었습니다. 욕심내지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은 삶이었습니다. '내 탓이지…' 하면서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족들 대신 그 날 자리를 메워 주신 하객 분들과 지나가다 결혼식 장면을 보고 멈춰서서 박수쳐 주신 그 날의 고운 얼굴들, 특히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코레일 서울역장님과 관계자분들 그리고 담당자님, 예쁘게 그 날을 수 놓아주신 모든 분들의 배려와 사랑은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도움은 한 가정에 소원이 이루어진 날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보내 주신 사진은 오늘도 이 가정에 소중한 보물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지만 남을 생각하고 도와주는 사랑과 배려는 위아래 상하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구별 없이 사람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사랑과 배려가 있기에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코레일 관계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마운 마음 새기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멀리 가평에서 김영희 올림

희망의 해피트레인을 다녀와서…

수혜자

김은광

저는 태어나서 백일이 되기도 전부터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까지 어머니의 등에 업혀 어머니께서 하시는 우유 배달과 과일 행상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찍이 병을 얻어 어머니께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기에 아직 목조차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핏덩이를 등에 업고 새벽부터 밤 늦도록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시던,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고단했을 어머니의 등에서 유아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가녀린 어머니의 팔에 매달려 울기도 많이 울고 떼쓰기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였고 어느 날 병을 앓고 계시던 아버님이 가족을 두고 먼저 생을 달리하시던 그 순간부터 저희 가족은 정말로 어머니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자랐습니다. 지금에는 편부, 편모 혹은 한부모 가정이라는 순화된 단어가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아비 없는 불쌍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없는 가난하고 불쌍한 아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려고 어머니는 전보다 더 많이 일하셨고 1년 365일 중 단 하루를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저희가 성년이 될 때까지 홀로 생계를 꾸려 나가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학에 입학하게 된 저는 우연찮게 '아동복지학과'에 운명적으로 입학하게 되면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저의 인생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봉사와 희생'과는 거리가 먼 '복지의 수혜자'였던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다른 이들을 위해 제 삶의 일부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굳이 저의 이야기를 말씀 드리는 것은 저희 어머님께서 제 유년시절 하루하루를 제가 주인공으로서 살 수 있게 해주셨기에 사회복지사로서 지금의 제가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은 하루하루를 경제적인 빈곤 속에서 고모 혹은 할머니가 자신들을 고아원에 맡기지 않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하루의 주인공은 자신들이 아닌 자신들을 돌봐주고 있는 고모와 할머니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던 아이들이 지난 4월 1일 오송관리역 사랑봉사회의 후원으로 '희망의 해피트레인 및 코레일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기차를 타보지 않았던 아이들에게는 기차를 탄다는 것만으로도 설렜고 혹시라도 비가 와서 기차를 탈 수 없게 될까봐 조마조마 하며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KTX를 타고 경복궁과 청계천을 직접 걸어보고, 또 쉽게 보지 못했던 오케스트라 관람까지 하게 된 아이들에게는 좋은 체험의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연주단원들이 사용하는 악기의 이름도, 또 무슨 곡을 연주하는 것인지도 대부분 모르는 아이들이었지만 그날 하루만큼은 아이들이 큰 행사의 주인공이 되게 해 준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특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서울 나들이를 보내준다는 소식을 접하고 두 딸과 수빈이가 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설레임에 밤잠도 못자고 설쳤는데 아침이 되자 수빈이가 못 간다며 떼를 쓰는 바람에 난감해 하고 있는데 옆집 아주머니께서 돌봐준다 하여 오시게 되었다며 엄청 좋아 하시는 수빈이 어머니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KTX 열차를 탈 때부터 두 딸의 손을 놓지 못하고 청주에 내려와 처음 가는 서울 나들이 그것도 말로만 듯던 KTX 타고 남편과의 추억이 있는 곳으로...하루 종일 옆에서 지켜봐도 무엇이 그리 재미있는지 두 딸과 손 한번 놓지 않고 웃으시는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찡하던지!.

그날의 행사는 시간이 흘러도 아이들의 머리와 가슴에 남는 행복한 기억이자 추억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할지 막막했던 아이들에게 내일 그리고 미래의 꿈에 대해 꿈꿀 수 있게 해준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초대해 주신 정창영 코레일 사장님, 오송관리역 사랑봉사회의 박정호 역장님, 최병수 부역장님등 행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글을 마칩니다.

2011 주요수상내역

코레일사회봉사단

보건복지부 표창
(2011 나눔실천 유공기관)

수도권동부본부

호반의메아리봉사회
춘천역
—
강원도지사 표창

코레일사회봉사단

글로벌 스탠더드 경영대상
사회책임경영 부문 '大賞'

대전충남본부

사랑봉사회
청주역
—
국무총리 표창
(노인의 날 복지증진 유공

수도권동부본부

원주기적소리봉사회
원주시설사업소
—
(사)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표창 수상

대전충남본부

한마음봉사회
대전전기사업소
—
대전광역시장 동상 수상
(대전 자원봉사대축제 입상)

수도권동부본부

청룡봉사회
양평시설사업소
—
경기도지사 표창
(경기 자원봉사대회 입상)

대전충남본부

디엘로봉사회
대전기관차승무사업소
—
대전광역시장 동상 수상
(대전 자원봉사대축제 입상)

광주본부

보금자리봉사회
광주건축사업소
—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표창

대구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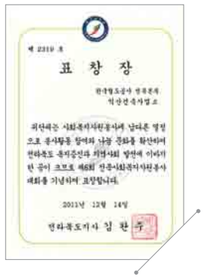
시나브로봉사회
경주기관차승무사업소
—
경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
표창

전북본부

전북본부사회봉사단
—
행정안전부 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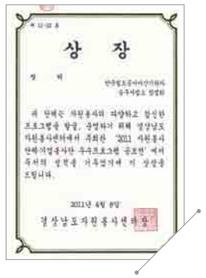
경북본부

기차사랑전기봉사회
전기처
—
경상북도지사 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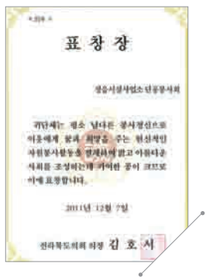
전북본부

사랑나눔봉사회
익산건축사업소
—
전라북도지사 표창



부산경남본부

참샘회
마산기관차승무사업소
—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
장려상 수상



전북본부

단풍봉사회
정읍시설사업소
—
전라북도의회 표창

부산경남본부

참샘회
마산기관차승무사업소
—
경상남도지사 수상

사랑과 희망으로 가꾸는
행복한 세상!
'세계1등 국민철도'

KORAIL

발행인 | 코레일 사회봉사단 단장 팽정광
담　당 | 코레일 사회봉사단 류정민, 배정열, 서태원
발행처 | 코레일 사회봉사단(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편집인 | 코레일 사회봉사단 사무국장 권영석
디자인 · 인쇄 | 삼우커뮤니케이션(02-336-8377)
전화 | 042-615-3201　**팩스** | 02-361-8278